

‘스타게이트’ 추진 논의… 딥시크 맞서는 AI 생태계 만들까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삼성-오픈AI-소프트뱅크 3자 회동

AI 동맹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이재용 회장, 무죄 이후 첫 행보
반도체 분야 등 협력 확대 전망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카카오 등 IT 기업 최고경영진을 연이어 만나며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동맹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AI 생태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3자 회동’을 시작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추진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입국해 오후 2시 40분 삼성 서초사옥에 도착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손 회장에 앞서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등 반도체 담당 경영진도 함께했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오픈AI와 3자 회의’에 대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현황과 삼성 그룹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에서 5000억달러(약 731조원)를 투입해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앞서 올트먼 CEO는 손 회장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 벤처 ‘스타게이트’ 설립 등에서 협력한 것으로 알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졌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자 회동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인 만큼 대규모 투자는 물론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산하 ARM의 AI 반도체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최태

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도 참석했다.

먼저 올트먼 CEO 등 오픈AI 경영진은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최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SK 그룹 경영진 중에서는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시작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와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의 만남은 지난해 1월과 같은 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6월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회동을 가졌다.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오늘 미팅 어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더풀’이라고 답하고 퇴장했으며 최 회장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회동 이후 올트먼 CEO

는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오픈AI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AI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올트먼 CEO의 미디어 데이 참석 및 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는 행사 개최 전까지 극비리에 부쳐졌다. 오픈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와 오픈AI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 발표에서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일상을 함께 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선보이는 것이 지금 시대 카카오의 역할일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제휴 배경을 설명했다.

올트먼 오픈AI CEO는 카카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를 좋아하고 AI 비전을 공유한다”며 “특히 AI와 메시지의 접목에 관심이 많다. 이 부분에서 탐구할 것이 많고 (메시지의 활용은)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트먼 CEO의 이번 광폭 행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맹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딥시크는 최적화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고성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딥시크 개방형 모델이 시장 경쟁을 넓히며 한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삼성, SK,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딥시크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부통제 먹통... 부당대출 46% 부실화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검사 우리은행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380억 원을 적발했다. 또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에도 불법대출이 취급되면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 우리은행의 경우 2334억원(101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에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시기인 지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유다. 금감원은 전체 부당대출의 46.3%(338억원)는 이미 부실화한 것으로 확인했고, 나머지 대출분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주요이사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열어 리스크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만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양·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종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최종 검사는 1분기 이후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에서도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지만 금융위에서 결국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금감원 발표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며 “당국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복현 “은행권, 뼈를 깎는 자성 필요”

(금감원장)

» 1면 ‘친인척 동원 부당대출’서 계속

다만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융위로 보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 절차와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우리·KB·NH금융지주 등 지주사 검사와 관련해 그룹 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모두 반영하면 일부 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 T1)은 10~20bps(1bp=0.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 무불이행시 신탁사가 통상 6개월 내 건

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부실이 커진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에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가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 부실한 내부통제도 책무구조도라는 규율만으로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